



신경숙 작가와 함께 한 문화기차여행

마음에 불 밝힌 그곳, 정읍

교보문고(대표 권경현)는 지난 5월 12일,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대산문화재단(이사장 신창재), 문학사랑(대표 김수영)과 함께 소설가 신경숙 씨와 전북 정읍으로 떠나는 '문화기차여행'을 마련했다. 일반인들의 신청을 받아 진행된 이번 여행에는 모두 300여 명이 참가해 '책'과 '여행'이 결합된 문화여행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글_이주연기자 | 사진_박신우기자



내소사 입구의 전나무 숲길(좌)과 하늘이 낮게 깔린 격포항의 방파제(우).



“이 산 밑에서 성장했다. 그리고 저 들 앞에서. 여름의 폭우와 겨울의 장설 속에서 나는 키를 키웠다. 지금도 나는 자연 앞에 서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진다는 말을 완전히 이해하진 못한다. 내게 있어 자연이란 얼마간은 피로하고 얼마간은 무서운 것이다.”

《외딴방》중에서

이방을 향해 열려 있는 길은 사람을 설레게 한다. 새벽부터 바람을 품은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참가한 이들의 표정은 ‘떠난다’는 기대 때문인지 밝았다. 게다가 ‘소설가 신경숙과 함께 하는 문화기차여행’이라는 이름처럼 작가와 함께 작가의 고향을 방문한다는 사실에 특별함은 배가되었다.

열차 안의 ‘문학 토크’, 신경숙을 키운 정읍의 산과 들

당일로 계획된 여행이기에 일정은 빠듯했다. 정읍 시에서 열리고 있는 ‘황토현 동학축제’ 참가, 내소사 방문, 모항 산책 등 이동을 위해 기차에서 보내는 시간을 빼면 꼭 찬 일정이었다. 관광전용열차 ‘Lady bird’는 중간 기착지가 없어 정읍역까지 걸리는 시간이 3시간 30분. 기차가 서울역을 출발하자 도시의 건물들은 빠른 속도로 멀어졌고, 녹색의 숲과 너른 들이 차창 앞으로

당겨왔다.

기차에 탄 300명 가까운 인원은 기차가 출발한 후 시작된 열차 안의 프로그램에 귀를 기울였다. 이벤트 객실에서 대신문화재단 곽효환 사무국장의 진행으로 신경숙 작가의 ‘문학 토크’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 작가는 “소설가의 꿈을 품게 된 과정”을 묻는 질문에 “사춘기 때 선생님이 내 반성문을 보고 ‘소설가가 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했고 그때부터 ‘소설을 써야지’ 생각했다.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어서 깊게 빠져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풍금이 있던 자리》로 일약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그때 기분이 어떠했느냐?”는 질문에는 “서른이 되기 전에 글 쓰는 일을 원 없이 해보고 싶어 동생에게 용돈을 타 쓰며 1년 동안 글을 썼고, 그걸 묶어서 단편집을 낸 것이 《풍금이 있던 자리》라며 ‘출판사에서 이상하다. 책이 계속 나간다’고 해서 나도 이상해했다. (웃음) 내가 더 이상 생업을 위해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해준 의미 있는 소설”이라고 대답했다.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내내 이벤트 객실에서 웃음과 박수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신 작가의 솔직한 대답과 진



참가자들은 기차 안에서 신경숙 작가의 <달의 물> 낭송을 통해 들은 내소사 창건 설화를 확인하며 신기해 했다.

행자의 유머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비 때문에 바뀐 일정, 채석강과 내소사 그리고 황토현

낮부터 개인다던 하늘은 기차가 정읍역에 도착할 때까지도 여전히 많은 비를 흠뻑리고 있었다. 주최 측은 날씨 때문에 일정을 약간 조정한다고 설명했고, 대절된 버스는 동학기념관 대신 변산반도의 채석강으로 향했다.

채석강은 격포해수욕장 좌측의 해안 암벽지대로 수성암이 단층을 이루어 수만 권의 책을 쌓아 놓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채석강이란 이름처럼 파도가 밀려와 바위 골을 빠져나가는 것이 마치 강물이 흐르는 것 같았다. 참가자들은 점심을 먹은 후 방파제를 걸으며 하늘이 낮게 깔린 격포항의 바다와 채석강의 절경을 감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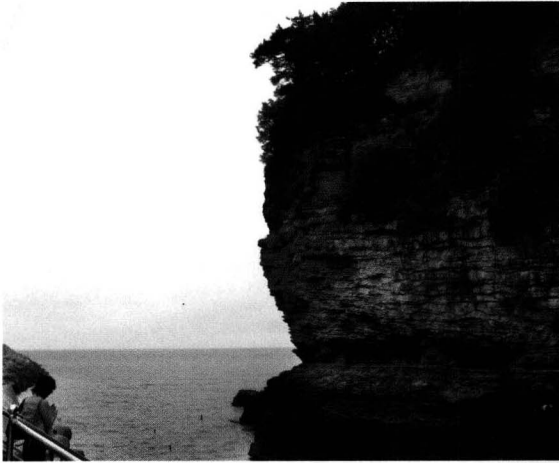
“천왕문을 넘으니 절 마당이 한눈에 들어왔다. 크지도 넓지도 않은 소박하고 아담한 마당이였다. 낮은 석축단이 대웅전까지 이어져 있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을 일주문 앞의 할머니 당산목과 쌍을 이루는 할아버지 당산목이 겨울바람 속에서 있었다. ‘저것이다! 어머

니는 겨울날 늦오후의 햇살을 받고 있는 대웅전의 꽃살무늬를 보더니 저것이다며 나를 돌아다보았다. 국화인가, 연꽃인가... 꽃살무늬를 새겼을 사람의 정성스러운 그 손길의 간절함이 전해지는 듯하여 숙연해질 지경이었다. 그 앞에서 어머니는 처녀처럼 미소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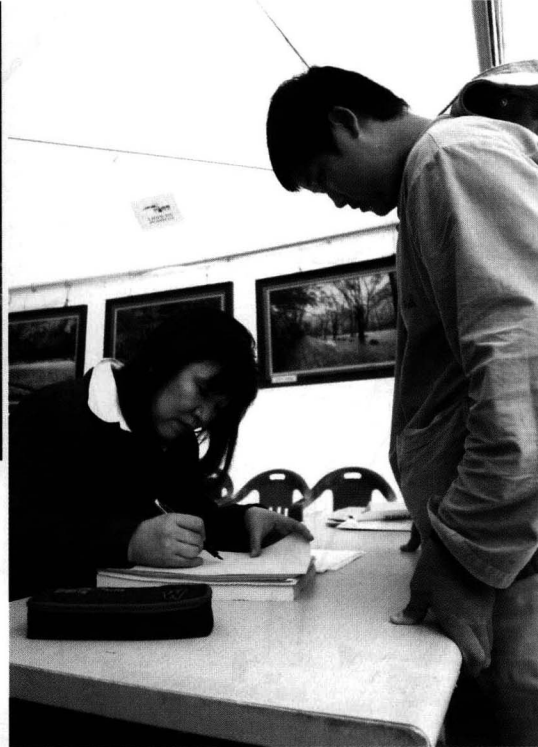
〈달의 물〉 중에서

내소사에 도착했을 때 비는 그쳐있었다. 신 작가는 “전나무 숲길을 걸으라고 비가 그쳐주세요. 그래도 날이 맑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며 아쉬워했다. 내소사는 그녀의 단편소설 <달의 물>의 배경이 된 곳으로 이번 여행의 가장 중요한 방문지였다. 소설에 묘사된 것처럼 일주문을 지나 사계절 내내 한결같이 푸르른 전나무 숲길을 걸었다. 아름답리 전나무가 늘어선 흙길을 밟노라니 영혼까지 정결해지는 기분이었다.

참가자들은 아까 기차 안에서 신 작가의 <달의 물> 낭송을 통해 내소사 창건 설화를 들었던 터라 대웅전 안쪽의 모자라는 ‘대목 한 포’와 ‘짜이 맞지 않는 단창’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꽃살무늬’의 이름 다음에 단성을 질렀다. 신 작가 또한 꽃살문을 응시하며 “을 때마다 한참 바라보게 된다”고 그리운 이를 다



채석강은 수성암이 단층을 이루어 수만 권의 책을 쌓아 놓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좌). '황토현 동학축제'에 온 독자에게 시인을 해주는 신경숙 작가(우).



시 만난 듯한 눈빛을 지었다.

정읍역으로 돌아오는 길에 '황토현 동학축제'에 들었다. 신 작가는 정읍시의 요청에 따라 짧은 사인회를 가졌고, 여행 참가자들은 동학운동을 마당극으로 재현한 공연을 구경했다. 피처럼 붉은 황토의 속살이 곳곳에 드러나 있어 땅의 힘찬 기운이 느껴졌다. 정읍에서의 마지막 일정이어서일까. 참가자들은 붉은 황토와 축제를 오래 보지 못하는 것이 아쉬운 듯 쉽사리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백 마디 말보다 유익한 한 번의 현장학습

일정을 마치고 다시 정읍역에 도착하자 종일 흐렸던 날씨 탓인지 오후 6시라는 그리 늦지 않은 시각임에도 역사 주변으로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참가자들은 기다리고 있던 열차에 올라 다시 서울을 향해 출발했다. 올라가는 열차 안에서 주최 측이 준비한 프로그램은 다양해 참가자들은 '문화여행'의 즐거움을 한껏 만끽할 수 있었다.

이번 여행을 기획한 교보문고 홍보팀의 남성호 팀장은 "2005년부터 진행되었던 '문학기차여행'의 내용과 의미를 보다 확장시킨 것이 '문화기차여행'이라며 "매회 참가자의 수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남 팀장은 '문학기차여행'의 성공비결을 "책을 통해서만 만나왔던 유명 작가와 우리 문화의 숨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과 주5일제의 정착으로 가족 단위 주말 이동이

가능해진 점"으로 꼽았다.

참가자 강선옥 씨는 "작년부터 아이들과 함께 매회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있다"며 "백 마디 말보다 한 번의 현장 학습이 아이들에게 저절로 독서의 필요성을 체득하게 한다. 또한 이런 문화 여행이 정서적으로 아이들을 고양시킨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익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기차'와 '고향'이라는 단어가 불러일으키는 절절한 귀소본능. 떠올리노라면 마음에 오롯한 등불 들어오는 그런 곳 하나쯤 갖지 않은 이가 있을까. 정해진 시간의 빠듯한 일정, 비와 바람에 시달려야 했던 날씨였지만 참가자들에게 '정읍'과 '내소사'는 이제 그런 특별한 곳이 될 것 같다. 돌아오는 열차 안에서 잠든 이들보다 창 밖을 바라보는 이들이 더 많은 것도 그래서이리라. 부드럽게 증식하는 밤의 대기가 차창을 감싸고 있었다. "철거덕 철거덕 바퀴소리를 내며 질주하는 기차의 차창에 손을 내려놓았다. 나는 자연스럽게 차창에 손을 내려놓은 내 행동에서 어떤 기약이, 가물가물 상실되려던 마음의 기약이 어렴풋하게 되살아남을 느꼈다."

《외딴방》중에서 **신**